

백악관(the White House)

빛 나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쪽 빛 바다를 내려다 보면 올리브나무 언덕 아래로 길게 이어진 조용한 해변. 아름다운 에게해를 마주보고 단정히 늘어선 조각같은 해변마을, 올림픽 성화를 채화하는 여인의 날개옷을 닮은 하얀나라 그리스. 그리스의 건축물은 온통 하얀색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현존하는 미 연방정부의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 되었다는 장방형의 단아한 건물이 있다. 담백한 이미지의 하얀 집, 이 곳이 미국 대통령이 생활하는 백악관이다.

백악관이 처음부터 하얀 건물은 아니었으며, 또한 처음부터 백악관이라 불렀던 것도 아니다.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1792년 대통령 관저 설계를 공모하였다. 영광의 주인공은 아일랜드계 미국인 건축가 호반(James Hoban)이었고, 건축 당시 백악관의 이름은 대통령의 집(President's House)이었다.

1814년 영국군이 수도 워싱턴에 진군하여 대통령의 집을 불태웠을 때 본래 회색 사암(砂岩)으로 지어진 이 집은 앙상히 건물 골조만 남게 되었고, 전쟁 후 이를 복원할 때는 흰색 칠을 하였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집으로 불렸으나, 복원 후 80여년이 지난 1902년에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26대) 대통령에 의해 공식 명칭으로 백악관(the White House)이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뒤 가장 먼저 안내되는 곳이 백악관 2층의「트루먼 발코니」라고 한다.

트루먼 발코니의 기둥에는 아직도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는 데, 이는 미국인에게는 유일하게 외세의 침공을 받아 국가의 권위가 불탄 역사의 상처로서, 어렵사리 이를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이 곳에 설 때마다 '역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임무의 무게를 느낀다'고 했다 하니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무언의 교육 자료로서 - 불에 탄 흔적 - 트루먼 발코니의 가치는 지대하다 하겠다.

백악관을 거쳐간 수 많은 지도자와 그의 가족 가운데, 정녕 이 꿈의 궁전을 아쉬워한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젊은 미망인 재클린이 아니었을까?

잘난 대통령의 피격으로 뜻 밖에 일찍 백악관을 떠나야 했던 그녀가 그리스 출신의 대 부호 오나시스와의 재혼을 결심한 것이 결코, 부나 명성 따위는 아니었으리라.

백악관을 닮은 신화의 나라, 올림피아 언덕에서 드높은 태양별에 성화(sacred olympic fire)를 채화하는 지상의 선녀들이 사는 나라, 고대 문명의 발상지임을 자부하며 가난하지만 매력있는 오랜 신사의 나라. 그 그리스와 결혼하였는지 모른다. (FILK)